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4, pp.115-120, July 31,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115

JCCT 2022-7-15

# 임무형 지휘에 기초한 우크라이나군의 분권화 전투 연구

# A Study on Decentralized Combats of the Armed Forces of Ukraine Based on Mission Command

신희현*

**Hee Hyun Shin***

**요 약**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은 강력한 기계화부대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군의 파상공세를 저지하여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주요 싱크탱크와 군사전문가들은 임무형 지휘를 기반으로 한 분권화 전투가 우크라이나군 주요한 선전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소부대의 공세적인 분권화 운용은 러시아군의 피해를 가중시켜 공격 기세를 둔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반도는 다영역 전장으로 변모되고, 이로 인해 분권화 전투는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우-러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했던 분권화 전투는 한국 육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주요어** : 임무형 지휘, 분권화 전투, 소부대, 다영역 전장

**Abstract** The Rsussian Armed Forces(RAF) invaded Ukraine on Feburary 24. However, the Armed Forces of Ukraine(AFU) unexpectedly blocked the Russian wave attack made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lengthened. Major think-tanks and military experts in the world assessed that the AFU overwhelmed the RAF at the initial stage of the war because of decentralized combats based on mission command. Especially, the decentralized small units of the AFU damaged the RAF and slowed down its Iniativ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akes the Korean Peninsula the multi-domain battlefield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Decentralized combat won't be a choice, but a necessity in the future. Therefore, the AFU's offensive decentralized combats in this war Suggests many things to the Republic of Korea Army.

**Key words :** Mission Commnad, Decentralized Combat, Small Units, Multi-Domain Battlefield

## Ⅰ. 서 론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강력한 기계화부대를 앞세워 우크라이라를 침공했다. 전 세계는 러시아가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항전(抗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후 '우-러 전쟁')은 지난 3월 25일 큰 변곡점을 지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것에서 돈바스(Donbass) 지역만을 점령하는 것으로 작전목표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와 군사전문가들은 놀라움을

*정회원,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26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일

Received: May 26, 2022 / Revised: June 21, 2022
Accepted: July 2, 2022
*Corresponding Author: shinh3@naver.com
Ph.D. program at Hannam University

감추지 못했고, 서둘러 그 요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선전(善戰) 요인 중 하나로 분권화 전투를 꼽고 있다. 이것은 소부대 단위로 시간과 공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의 취약점을 집중공략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미 여러 전쟁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1979~1989)과 체첸(1994~2009)의 반군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소련군과 러시아군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런 분권화 전투는 현장 지휘관(자)과 전투원들의 독자적인 '감시(Shooter)-결심(C2)-타격(Shooter)'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 육군은 이를 위해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 개념을 발전시켜 모든 부대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 육군도 미래 다영역으로 확장된 한반도에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권화 전투를 위해 임무형 지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우-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선보이고 있는 임무형 지휘에 기반한 분권화 전투는 연구할 가치가 높다.

우크라이나 군은 2014년 돈바스 전쟁 이후 미 육군으로부터 임무형 지휘를 전수받아 분권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임무형 지휘를 우크라이나군의 선전 요인으로 연결짓는 선행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규전부대와 비정규전부대 간의 분권화 전투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이번 우-러 전쟁처럼 정규전부대 간의 분권화 전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미 육군으로부터 어떻게 임무형 지휘를 전수받았고, 이것이 이번 우-러 전쟁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전투사례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 II. 우크라이나군의 임무형 지휘 도입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舊 소련군과 유사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고, 내부에는 소련군의 중앙집권적인 지휘체계와 조직문화가 잔존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1994년 비핵화 대신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Budapest Memorandum)에 서명함으로써 별다른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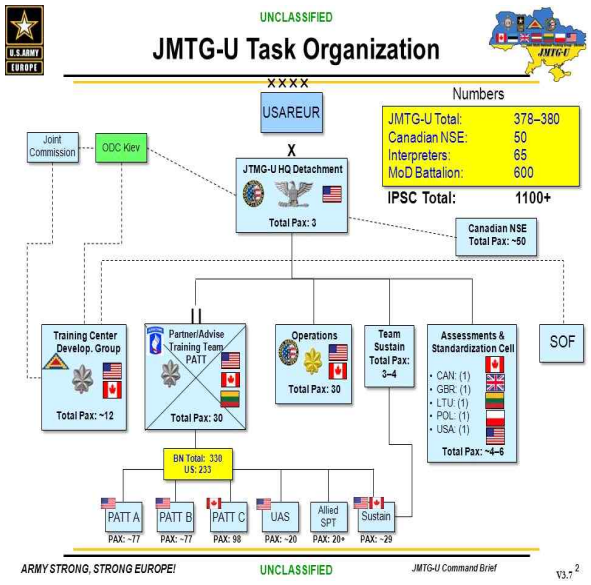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에 휘말려 크름반도와 돈바스 일부 지역을 상실하게 되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중앙집권적인 지휘체계로 앞도적인 전투력을 보유한 러시아군을 상대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분석했다[2].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싸우는 방법을 분권화 전투로 변경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관(자)과 전투원들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감시-결심-타격'하는 임무형 지휘의 도입을 서둘러 추진했다[3].

임무형 지휘는 예하부대에 과업(Tasks)은 부여하되 수행하는 방법은 예하부대에 위임하는 것이다[4].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군 내부에는 임무형 지휘를 받아들이기 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전술(前述)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舊 소련으로부터 전이된 중앙집권적 지휘체계와 조직문화가 우크라이나군의 의사결정체계에 잔존했기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군 지도부는 나토(NATO)군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해나갔다. 그 결과, 2016년 미 유럽사령부 예하 7군 훈련사령부가 운영하는 전투훈련센터가 야보리브(Yavoriv)에 설립되었다[5].

출처: https://www.dvidshub.net/image/6849429/ukrainian-soldiers-conduct-urban-operations

그림 1. 야보리브(Yavoriv)에 설립된 전투훈련센터
Figure 1. Combat Training Center at Yavoriv

전투훈련센터에는 나토군으로 편성된 'Joint Multinational Training Group-Ukraine, JMTG-U'가 조직되었다. JMTG-U에는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폴란드군, 리투아니아군 등이 참가했다. 이중 미군은 다영역전투와 개인·부대훈련 능력을 보유한 주 방위군 예하의 여단 전투단을 순환 배치했다.




출처: JMTG-U, JMTG-U Command Brief, 2016. 1. 18, p. 2.

그림 2. JMTG-U 편성
Figure 2. JMTG-U Task Organization

JMTG-U는 전투훈련센터에 입소하는 600명 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3단계로 진행되는 9주 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무엇보다도, JMTG-U는 임무형 지휘를 훈련의 중점으로 삼았고, 우크라이나군에게 개인훈련, 팀, 소부대 및 대대 순으로 진행되는 전술훈련, 그리고 지휘관(자)과 대대 전투참모단을 대상으로 한 전투지휘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모든 대대는 우-러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까지 전투훈련센터에서 임무형 지휘를 숙달할 수 있었다.

## III. 우크라이나군의 분권화 전투 사례

우-러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군에 형성된 임무형 지휘는 실제 전장에서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부대 단위의 분권화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러시아군의 핵심전력인 대대 전술단의 측·후방을 타격하여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 우위를 이끌었다. 여기서는 전쟁 초기 키이우 외곽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공격팀이 수행한 매복전투와 드론정찰팀이 수행한 화력전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대전차 공격팀의 매복전투

우-러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NLAW, 재블린 등 다양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각개 전투원까지 대전차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나 주요 외신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대전차미사일을 개인화기처럼 휴대하고 다니는 우크라이나 전투원들을 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battleorder.org/ua-graphics

그림 3.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보병분대 편성
Figure 3. Mechanized Squad Organization of the Ukraine Ground Fo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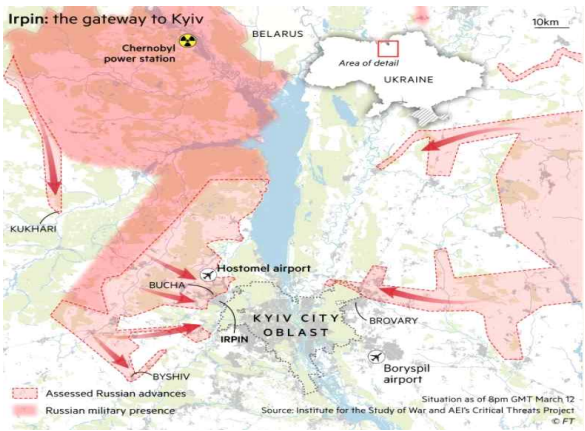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보병분대는 기동그룹(4명)과 화력그룹(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접전투 지역에서는 최소 2명 1개조로 활동한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분대는 3개의 대전차공격팀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3월 4일 수도 키이우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부차(Bucha) 지역에서 분권화 전투를 실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공격팀들은 도시지형에 은·엄폐하면서 러시아군 대대전술단의 측·후방을 타격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심대한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3월 12일,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 다시 한번 파상공세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공격팀을 운용하여 부차(Bucha), 이르핀(Irpin), 브로바리(Brovary) 등지로 접근하는 러시아군의 대대전술단의 측·후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 결과, 키이우를 포위하기 위해 접근하던 러시아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또다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키이우 외곽의 도시지역은 인공구조물로 인해 원활한 지휘통제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 소부대들은 과업과 이를 수행할 전투지역만 부여받은 채 독자적으로 근접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지형적 제한사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군 대전차공격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들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인 지형과 지리의 익숙함을 십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군 대대전술단들은 키이우 외곽의 도심지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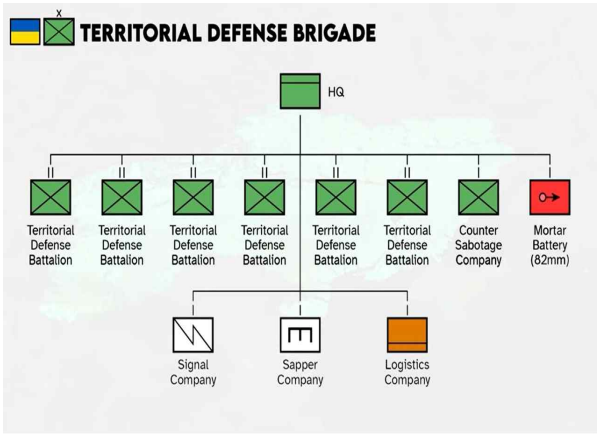

출처: https://www.ft.com/content/

그림 4. 3월 12일, 러시아군의 전진
Figure 4. Russian Ground Forces' Advances on March 12

## 2. 드론정찰팀의 화력전투

우크라이나군 대전차공격팀들과 별도로 드론정찰팀들도 분권화 전투를 실시했다. 전자는 우크라이나 정규군이지만, 후자는 국토방위군(Territorial Defence Group) 소속이다. 국토방위군은 미군의 주 방위군과 유사한 것으로 지역방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국토방위군은 총 25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여단은 보병 중심의 편성을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토방위군은 책임지역에 대한 지형과 지리에 익숙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초·중순, 키이우를 포위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에서 국토방위군 소속의 드론정찰팀들은 러시아군 대대전술단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5~6명으로 편성되었고, 자신들이 보유한 상용드론을 활용하여 화력전투를 수행했다. 실제로, 부가티(Bugatti) 중대 예하의 드론정찰팀의 전투수행 모습이 BBC 종군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다양한 미디어와 SNS에 공유되었다[6].




출처: https://cybershafarat.com/2022/01/17/ukraines-military-what-russia-faces-primer-to-ukraines-ground-army/

그림 5. 국토방위군 편성
Figure 5. Territorial Defense Brigade Organization

우크라이나군 드론정찰팀의 전투수행방법은 전술한 영상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지형과 지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러시아군 대대전술단의 측·후방으로 은밀히 접근한다. 다음으로, 드론을 운용하여 표적을 식별함과 동시에 박격포, 포병화력,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등을 요청하여 타격한다. 이어서, 드론을 운용하여 표적에 대한 전투피해평가(Battle Damage Assessent)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타격요망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시 드론으로 표적 위치정보를 최신화하여 재타격하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출처: https://www.thetimes.co.uk/article/specialist-drone-unit-picks-off-invading-forces-as-they-sleep-zlx3dj7bb

그림 6. 드론 공격에 파괴된 러시아군 대대전술단
Figure 6. The Russian Battalion Tactical Group Destroyed by Ukranian Drones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크라이나 드론정찰팀들은 다른 지휘 계선을 거치지 않고 화력을 제공하는 부대와 직접 무전으로 통신하면서 화력전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감시-결심-타격' 주기를 단축하여 높은 표적 피해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BBC는 이들의 활약으로 키이우를 접근하는 러시아군 대대 전술단들의 기동이 저지되었다고 특필하기도 하였다[7].

이처럼 3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군 대전차공격팀들과 드론정찰팀들이 키이우 부근에서 수행한 분권화 전투는 성공적이었다. 이들은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파상공세를 저지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작전목표를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돈바스와 남부 해안지역으로 변경할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 합참의장인 밀리(Mark Milley) 장군도 우크라이나군의 분권화 통제와 전술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8].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분권화 전투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임무형 지휘에도 능수능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Ⅳ. 시사점

러시아의 세계 군사력 순위가 2위인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22위이다[9]. 이와 같은 군사력 격차에도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했다. 그 요인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군의 분권화 전투였다.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의 모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을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러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한 분권화 전투는 한국 육군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단기간 내 임무형 지휘를 강화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숙달할 수 있는 훈련센터의 조성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군은 전투훈련센터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JMTG-U가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개인~대대)을 9주 동안 숙달하면서 임무형 지휘 능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이번 전쟁 초기 분권화 전투를 통해 러시아군의 키이우 포위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한국 육군도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 곳에 불가하다. 이로 인해, 육군 예하의 모든 부대가 훈련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고, 설상가상으로 복무기간의 단축, 도시화, 이상기후 등으로 훈련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10]. 훈련의 감소는 전투원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임무형 지휘의 약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국 육군은 임무형 지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부합된 과업(Mission Essencial Taks List)을 도출하고, 권역별로 실제훈련(Field Training Exercise)과 가상훈련(Virtual Exercise)를 병행할 수 있는 '임무형지휘훈련센터'를 조성하여 분권화 전투를 수행하는 소부대의 임무형 지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연속적인 기동력과 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대를 팀 구조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소부대의 분권화 전투는 연속적인 기동과 화력으로 구현된다[11]. 이를 위해서는 분대 예하에 기동력과 화력을 교대로 발휘할 수 있는 팀 편성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군 분대는 이를 위해 분대장이 지휘하는 화력그룹(4명)과 선임보병이 지휘하는 기동그룹(3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평소 그룹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팀워크를 강화하여 전술한 것처럼 공세적인 분권화 전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육군의 분대는 훈련 또는 전시에만 일시적으로 분대장조와 부분대장조로 구분된다. 이로 인해, 분대를 여러 개의 전투조로 구분하여 운용 시 팀워크 발휘가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 육군도 미래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공세적인 분권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역 가용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분대 예하에 2개의 팀을 편성하여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Manned & Unmanned Teaming Combat)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지휘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정찰팀은 전투실시간 화력지원부대와의 직접적인 무전통신을 통해 화력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표적을 식별함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Sensor to Shooter'를 구현하여 러시아군 인원과 장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한국 육군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덧입은 드론봇 전투체계, Army TIGER 등 미래 한반도 전장에 적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12]. 따라서 드론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팀은 다영역(Multi-Domain) 타격수단과 초연결되고, 이들로부터 전투실시간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투공간은 다영역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장차 한반도의 전장환경에서 분권화 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러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의 분권화 전투를 벤치마킹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Thomas X. Hammes, The Sling and the Stone: On War in the 21st Century, Zenith Military Classics, 2006.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15892&cid=60344&categoryId=60344
[3] https://www.wsj.com/articles/ukraine-military-success-years-of-nato-training-11649861339
[4] Republic of Korea Army(2022). Encyclopedia of Knowledge.
[5] https://www.7atc.army.mil/History/
[6] https://www.bbc.com/news/av/world-europe-60878703
[7] https://www.rferl.org/a/ukraine-russia-invasion-kyiv-makariv-volunteers-drone-reconnaissence/31770732.html
[8] https://abcnews.go.com/Politics/wireStory/defense-leaders-russia-learning-mistakes-ukraine-84476949
[9]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10]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Army Basic Policy Office (Army Vision 2030), 2019, p. 93.
[11]Army Future Innovation Research Center, South Korea, "Design of Future Infantry Squadron Structure with Military Innovation Thinking Process," 2021.
[12]Defense Department, Defense Vision 2050, 2021, p. 35.